

CEO 동경

호남본부 신년 업무보고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8일 호남본부 정읍사무소에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는 열린 소통을 통해 자발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단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영진 워크숍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3일 경영진 워크숍에 참석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조직·인사부문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뽑혀

- 경영위기 극복 위한 강도높은 조직, 인사혁신 추진 결과 -

* * *

공단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혁신을 추진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조직·인사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은 지난 2011년 11월 강소, 혁신, 기술전문조직의 3대 기본원칙 하에 대본부, 대처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 28개 부서를 감축하는 조직구조 슬림화를 통해 결재단계를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변모를 꾀했다.

이를 토대로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및 시공방법 개선 등으로 9579억원, 기관운영경비 626억원 등을 포함해 총 1조20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자산개발 등을 통해 442억원의 수익창출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순수부채를 상환했다.

또한 성과부진자 퇴출제, 직위공모제, 직급상한제 등을 선정해 핵심과제를 부여, 능력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과 인사의 투명성 강화, 장기 간부근무자에 대한 동기부여 대책 등을 마련·시행했고 이를 통한 성과를 바탕으로 엄정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해 왔다. 그리고 공공기관 선진화계획('09년~'12년)에 의한 정원 198명 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감축목표를 지난해 6월 조기 달성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해 2010년부터 3년간 71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김광재 이사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인사·조직 선진화 우수사례는 기획재정부가 타 기관의 사례와 함께 책자로 발행해 전 공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950톤 CO₂ 감축

- 목표 대비 166% 초과 달성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해 사무실 온도 유지관리, 동·하절기 피크시간대 냉·난방기 순차운용, 연중 점심시간 절전 및 야간조명 자동소등시스템 운영, 엘리베이터 격중·제한 운행, 에너지 절전형 LED조명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573톤 CO₂를 크게 상회하는 950톤 CO₂를 감축해 목표대비 166%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감축계획대로 적극 이행하기 위해 사내 전산망을 활용한 홍보 및 교육으로 전직원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데 따른 효과이다.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제도로서, 온실가스 기준배출량('07년~'09년 산술평균치) 대비 20%를 2015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5%에서 18%로 높여 정부 계획 목표보다 앞당겨 달성할 계획"이라며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생태계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철도건설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적극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7조6천억원 철도투자비 중 4조6천억원 상반기 조기집행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1조1788억원 증가한7조6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 60.1%인 4조579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올해 상저하의 경제성장 전망에 따라 상·하반기 경기진폭 완화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6조6937억원을 기배정해 계속사업은 즉시 계약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철도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완벽한 품질관리 및 시공으로 오리~수원 복선전철(망포~수원),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4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고 총 38개 사업은 공정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원주~강릉 미발주 6개 공구 등 총 3조1천억원의 사업도 올해 신규발주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비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에만 9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2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된다.

구분	생산유발효과 (2.1억원/1억원)	고용창출효과 (13.7명/10억원)	비고
2013년 효과	16조 20억원	10만 4,394명	한국은행 2010산업연관표 ('12.5월)
(상반기)	9조 6,171억원	6만 2,740명	

아울러 조기집행 예산 지급업체에 대한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해 매월 집행점검을 실시하고 부진 시 만회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경기활성화 및 철도 서비스 적기 제공 등 정부 정책에 맞춰 조기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도건설 예산을 더욱 절약하고 공단 재무개선을 위한 부채증가 최소화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영남권 철도건설사업 1조2218억원 투자

- 전년대비 29% 증액...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올해 영남권 철도건설사업에 전년대비 29% 증액된 1조221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 중 철도건설 사업비는 작년 6조4412억원 대비 18.3% 증액된 7조6201억원이며, 이 중 영남권 사업비는 1조 2218억원으로 작년 대비 29%(2751억원)가 증가했다.

본부에 따르면, 올해 영남권에 경부고속 2단계 사업 등 7개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부전~마산 복선전철(BTL 사업) 등 3개 철도사업이 신규로 착공된다.

경남권의 경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사업에 2900억원(전년대비 112% 증액)이 투입해 연말에 안락~기장간 운행선 변경을 목표로 추진되는 3개 사업에 총 3350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경북권의 경우는 경부고속2단계 등 7개 사업에 전년(6242억원)보다 42% 증액된 8868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철도건설사업 투자확대로 올해 1만6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 영남권 전체 사업비의 62.1%인 7500여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분	해당사업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12년 사업비	'13년 사업비	증감
경상 남도권	경전선	'02~'13	94.0km	18,724	1,836	250	0.14
	부산~울산	'93~'15	65.7km	23,111	1,369	2,900	2.12
	부전~마산	'04~'18	51.1km	15,091	20	200	10.00
	소계			56,926	3,225	3,350	1.04
	대구도심	'07~'14	27.1km	16,314	1,910	2,150	1.13
경상 북도권	KTX연결선	'10~'14	3.8km	1,196	270	458	1.70
	대구선	'06~'17	38.6km	6,486	496	900	1.81
	울산~포항	'03~'14	76.5km	23,908	2,306	3,400	1.47
	포항~삼척	'02~'16	165.8km	29,421	1,100	1,700	1.55
	울산신항	'10~'16	9.3km	1,883	60	60	1.00
	포항영일만신항	'10~'16	11.3km	1,815	100	200	2.00
합계				81,023	6,242	8,868	1.42
				137,949	9,467	12,218	1.29

지난해 1조205억원 사업비 절감

- 올해도 약 1조원 수준 절감 목표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지난해 예산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과잉시설 규모 조정, 시공방법 개선 등으로 지난해 예산 3880억원, 총 1조20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절감 내역

(금액단위: 억원)

절감 항목	절감액
합계	10,205
시설규모조정, 시공방법개선	6,010
기반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VE) 및 심사	3,569
기관운영 경비 등 관리비 및 기타 절감	410
전략적 채권발행 등 금융비용 절감	216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로 인한 경영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 이후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 등 '6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재무구조 개선 토론회, 수익창출 아이디어 공모 등 예산절감 노력을 전사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지난 2004년 공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11년 말 금융부채 6000억원 감소 및 부채상환 415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 역시 금융부채 8000억원 감축과 800억원의 부채를 상환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지난해 주요 사업비 절감내용은 ▲선구와 선구간 접속부를 임체교차에서 평면교차로 변경 ▲터널내 정거장 본선 환기구를 정거장 외부설치에서 내부설치로 변경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한 정거장 규모 축소 ▲전차선 높이 및 공동관로 규모축소를 고려한 터널 단면적 조정(76.1㎡~70.7㎡) ▲유사기능을 하는 신호·통신건물의 슬림화 ▲역무공간의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역장실과 역무실의 통합개선 등이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 공로를 인정받아 「2012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지속가능경영부문 대상, 「리더십경영부문 2012 올해의 CEO」 대상, 「2012 VE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마른 수건도 다시 짜자'는 공단의 사업비 절감 노력은 올해도 이어져 약 9917억원의 예산 절감을 달성할 계획이다.

김광재 이사장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한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창조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직원에게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올해 강원권 철도건설사업 전년대비 46% 증액

- 총 7405억원 투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강원본부(본부장 이동춘)는 올해 강원권 철도건설사업에 전년(2,341억원) 대비 46% 증액된 7405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올해 강원권에서 원주~강릉 철도건설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은 올해 4650억원(전년대비 258% 증액)이 투입되며, 지난해 착공한 5개공구와 이달 7개 공구가 발주돼 전 구간에서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한 원주~제천 복선전철 사업은 1200억원(전년대비 186% 증액)을 투입할 예정이다.

본부는 올해 강원권 철도건설 사업비의 57.4%인 425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강원권에 약 1만3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도 강원권 철도건설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13년 예산	상반기	하반기	비고
계	740,535	424,955	57.4	740,535 100.0
원주~강릉	465,000	240,000	51.6	465,000 100.0
원주~제천	120,000	77,000	64.2	120,000 100.0
제천~쌍용	71,580	46,000	64.3	71,580 100.0
도담~영천	40,000	18,000	45.0	40,000 100.0
영주램	43,955	43,955	100.0	43,955 100.0